

송영길 민주당 前 대표 검찰 자진출석

# “모든 책임 지겠다… 주변인 협박·별건수사 중단해야”

검찰측 조사거부… 기자회견 가져  
“수사 시작 전 피의사실 유출 유감  
특수부 아닌 공안1부에 배당해야”

2021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으나, 검찰의 조사 거부 방침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도착해 출입절차를 밟았으나, 검찰 측은 미리 밝힌 대로 송 전 대표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억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수사는 안 된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으나 출입 거부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20대에 막 결혼해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위경맘,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억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전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 전 대표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전 언론에 공개돼,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을 다가온다”면서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자신의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할 것이 아니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가 검찰이 하는 이야기를 이중 별건 수사라고 했다. 이 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 아닌가”라며 “(이 전 사무총장)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는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 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사실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당대회라는 것이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저는 후보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피의자가 수사 일정·방식 요구… 특권 의식의 발로”

“협조 모양새 취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수사 방해·여론 호도”

국민의힘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2일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비꼬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로 공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겉으로는 검찰 수사 협조 모양새를 취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는 알박한 출두 소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송 전 대표 자택, 후원 조직, 경선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으로 돈 흐름 추적에 나

선 점을 언급한 뒤 “최근 송 전 대표 (2021 전당대회)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 쇼나 핑수 출두 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라며 송 전 대표 검찰 자진 출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입증을 검찰에 통보해 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닮은 꼴”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범위의 균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尹 대통령 “한미동맹 확장 이제 시작… 후속조치 서둘러야”

한미정상회담 성과·결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민방문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 방미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이 그간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며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방미 일정 중 하나였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언급하며 “단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친 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에 대한 열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에 바이오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박광온, 대통령 회동 거부 “당 대표가 순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 회동 가능성은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전날(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모임에서 제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2일) 오후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방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와 이 정무수석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자들과 만나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둘이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셨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